

교원업적평가와 성과연봉제 그리고 강의평가

한경수¹

¹전북대학교 통계학과

(2011년 3월 접수, 2011년 3월 채택)

요약

2011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립대 교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가 3월에 신규 임용되는 교원부터 적용된다. 2013년에는 비정년 교원, 2015년에는 정년 교원을 포함한 전체 교원이 성과연봉제의 대상이다. 성과연봉제의 4개 등급인 S(20%), A(30%), B(40%), C(10%)로 모든 교원을 나누려면 상대평가 방식의 교원업적평가가 매년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업적평가 기준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교육(40%), 연구(40%), 봉사(20%) 등의 3개 영역에서 약간의 비율 차이가 나는 정도일 것이다. 교육평가에서는 담당 수업 시간 수, 대학원 졸업생 배출, 학생 지도 등과 같이 손쉽게 양적 평가가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몇몇 연구자들이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강의평가 점수의 사후 보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자들이 제안한 강의평가 점수에 대한 사후 보정 방법을 전북대학교에 적용해 본 결과는 아직도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시비를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교육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재학생의 강의평가 이외에 동료 교수, 교육 전문가, 졸업생, 기업인, 학과와 관련된 외부 인사 등의 강의평가를 함께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주요어: 교원업적평가, 성과연봉제, 강의평가.

1. 머리말

2011년 3월부터 신규 임용된 국립대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제가 실시된다. 비정년 교원은 2013년, 정년 교원은 2015년부터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업적평가에 따라 성과 등급을 S(20%), A(30%), B(40%), C(10%) 4개 등급으로 나누되 대학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pm 5\%$ 의 자율 구간을 허용한다. S등급은 1.5~2배를 받는 반면 C등급은 연봉이 동결된다. 따라서 4년 연속하여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을 받은 두 교수의 연봉 차이는 1,000만원 이상이다.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려면 주요 평가 영역인 교육, 연구, 봉사에 대한 교원업적평가가 필수적이다. 교육 평가에선 몇몇 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지만 교육의 질적인 평가는 학생들의 강의평가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별 대안이 없다는 것이 우리대학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대학들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강의평가 방식은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담당 교수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비용이 매우 적게 드는 행정편의 위주의 제도로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파악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문항별 변별력이 거의 없어 더 이상의 의미를 찾기가 힘들다 (김영진 등, 1994).

¹(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통계학과(응용통계연구소), 교수.

E-mail: kshan@jbnu.ac.kr

표 2.1. 강의평가 문항

-
1. 수업계획서에는 수업에 관한 정보가 명확히 제시되었다.
 2. 교수는 철저하게 수업을 관리하고 진행하였다.
 3. 교수는 적절한 교수법 및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이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4. 평가관리 절차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
 5. 시험 및 과제는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6. 이 수업을 동료나 후배에게 추천하고 싶다.
 7. 교수는 수업시간 이외에도 지도를 받을 시간 또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8. 강의 내용은 풍부하고 깊이가 있었다.
 9. 강의 진행방식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다.
 10. 나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전북대를 포함한 많은 대학들이 강의평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강의평가를 하지 않은 학생은 성적 환인을 못하게 하는 강제적인 강의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강의평가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부실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대학들은, 강의평가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강의평가 점수가 이수 구분, 수강 학년, 강좌 규모, 평균 학점 등에 따라 편향성을 가지므로 대학마다 자체 연구로 강의평가 점수를 사후 보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신일 (2002)은 2년간 4,503개 전공강좌를 분석한 후, 강좌규모와 강의평가 평균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김학일 등 (2007)은 이공계 471개 과목의 강의평가 결과를 분석한 후, 교양보다는 전공,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수업의 강의평가 점수가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그들은 강의 유형에 따른 평가 점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강인원과 단과대학별로 강의평가 원점수를 보정한 표준점수를 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문 간의 차이와 교양과 전공간의 이수구분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평가 점수에 특별한 보정 작업이 없는 경우, 많은 교수들이 강의평가 점수가 낮게 나오는 교양 수업을 기피하고 있다고 문권배 (2010)는 보고하였다.

강좌 특성에 따른 강의평가 점수의 편의를 통계적으로 보정하기 위한 몇몇 연구들이 있었다 (김성연과 권치명, 2005; 조장식 등, 2009; 조장식, 2010).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단과대학 특성, 학과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전체 대학 대상으로 수강학년, 이수구분, 강좌규모, 평균학점 등에 대하여 통계적인 사후 보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단과대학별, 학과별, 이수구분별 특성에 따른 강의평가 평균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따라서 사후 보정 작업이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지를 얻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 결과를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절에서 단과대학별로 이수구분에 따른 강의평가 평균 점수 차이를 논의한다. 자연과학대학내에서 학과별, 이수구분별 특성에 따른 강의평가 평균 점수 차이에 관한 논의는 3절에서 다루어진다.

2. 단과대학별 강의평가 특성

과목별 이수구분에 따라 강의평가 평균 점수가 단과대학별 특성에 기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북대학교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6학기 동안 이루어진 강의평가 자료를 실증 분석하였다. 강의평가 문항은 총 10개 문항으로 표 2.1과 같으며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한 과목이라도 강의평가를 하지 않으면 성적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의평가 참여율은 매학기 90%에 달한다. 이와 같은 강제적인 강의평가 제도 하에서 한경수 등 (2011)은 5개 학기 동안에 평균 20.4%의

표 2.2. 이수구분별 자연과학대학 강의평가 평균 점수

대학	교양(과목수)	대학	전선(과목수)	대학	전필(과목수)
농업	3.52(119)	생활	3.82(297)	생활	3.67(59)
자연	3.55(966)	사회	3.83(541)	사회	3.73(118)
공과	3.60(679)	상과	3.85(834)	자연	3.78(199)
사회	3.65(239)	법과	3.92(277)	상과	3.79(191)
인문	3.69(2,271)	환경	3.92(152)	법과	3.81(133)
상과	3.71(245)	인문	3.93(1,116)	인문	3.83(170)
환경	3.73(101)	자연	3.95(915)	환경	3.89(58)
생활	3.74(58)	공과	3.99(2,585)	공과	3.89(710)
사범	3.75(316)	농업	3.99(1,042)	농업	3.92(247)
법과	3.76(26)	예술	4.02(1,478)	사범	4.06(281)
예술	3.79(241)	사범	4.11(721)	예술	4.15(976)
전체 평균	3.66(5,261)	전체 평균	3.96(9,985)	전체 평균	3.95(3,273)

학생들이 자신이 수강한 모든 과목을 동일 번호로 무성의하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무성의한 응답 비율은 여학생이 14.3%이지만 남학생은 25.6%이고, 1학년이 14.3%인 반면 4학년은 28.5%로 거의 두 배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강의평가 결과 중 51.4%는 모든 문항에 대하여 동일 번호로 응답한 것이었다. 대부분 무성의한 응답자들은 강의평가를 후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응답한 학생들의 강의평가는 무응답과 같으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통계처리하고 싶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무성의한 응답이 많은 어떤 과목들은 강의평가 점수를 아예 산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총 6개 학기의 강의평가 평균 점수는 표 2.2의 맨 아래 하단에서 보는 것처럼 교양 3.66점, 전선 3.96점, 전필 3.95점이다. 단과대학별 학문의 차이는 무시한 채, 이수구분만 놓고 본다면 전선과 전필은 별 차이가 없으므로 교양 과목인 경우에 평균 0.3점을 사후보정해주면 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표 2.2에서 자연대학은 교양과목의 경우 3.55점으로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나 전선은 3.95점으로 0.4점 높아졌다가 전필은 다시 3.78점으로 떨어진다. 반면에 생활대는 교양은 3.74점, 전선은 3.82점, 전필은 교양보다 낮은 3.67점이다. 따라서 단과대학별 특성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사후보정 정책은 단과대학별로 달라져야 한다. 단과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후보정을 하고 있는 대학이나 사후보정 방법을 제안한 연구자들은 그들 대학의 단과대학 특성은 어떠한지 반드시 조사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단과대학내에서 학과별, 이수구분별로 강의평가 평균 점수를 보정한다면 교육의 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3. 자연과학대학내의 학과별 강의평가 특성

단과대학내에서 학과별 특성에 따라 이수구분별 강의평가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든 단과대학을 분석할 필요는 없다. 학기별로 자연과학대학만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가 표 3.1이다. 이수구분별로 보면 2학기 평균 점수가 1학기보다 거의 모두 조금씩 올랐지만, 5% 유의수준에서 전체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교양 0.1점과 전선 0.05점으로 나타났다. 성과연봉제가 적용될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이러한 작은 점수 차이도 보정하자고 요구할지 모르겠다.

표 3.2는 학과별로 교양과목의 강의점수 평균과 학년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물리학과는 경우 전체 평균보다 낮은 3.40점이나 스포츠과학과는 3.76점으로 물리학과보다 0.36점 높고 자연과학대학 전체 평균인 3.55점보다도 0.21점 높다. 물리학과는 교양과목은 대부분이 “일반물리학 및 실험”이고 교양 필수이며 평균 학년도 낮은 1.1학년인 반면에, 스포츠과학과의 교양과목은 “건강달리기”, “요가”, “운동과 건

표 3.1. 이수구분별 단과대학 강의평가 평균 점수

년도	학기	교양(과목수)	전선(과목수)	전필(과목수)
2008	1	3.51(162)	3.92(138)	3.71(43)
	2	3.52(138)	3.90(156)	3.76(27)
2009	1	3.47(175)	3.90(148)	3.76(40)
	2	3.62(152)	4.01(161)	3.80(26)
2010	1	3.54(187)	3.95(142)	3.81(38)
	2	3.68(156)	3.98(158)	3.91(24)
전체	1	3.51(524)	3.92(428)	3.76(121)
	2	3.61(446)	3.97(475)	3.82(77)

표 3.2. 학과별 교양과목 강의평가 평균 점수와 평균 학년

학과	평균점수(과목수)	평균학년
물리	3.40(234)	1.1
통계	3.41(57)	1.4
생물	3.46(109)	1.4
반도체	3.57(29)	1.2
지구환경	3.57(44)	1.4
화학	3.59(120)	1.5
수학	3.63(231)	1.2
스포츠	3.76(72)	1.8
과학	3.77(73)	1.5
전체	3.55(969)	1.3

강” 등이며 교양 선택이고 평균 학년도 비교적 높은 1.8학년이다. 이러한 강의평가 점수의 평균 차이가 과목 특성, 이수구분, 평균 학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닌 순수한 강의의 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믿겠는가? 더구나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그리고 필수보다는 선택에 강의평가 점수가 후한 경향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양 수학의 경우에는 평균 학년이 1.2학년으로 낮지만 강의평가 점수는 평균보다 높은 3.63점으로 물리학과보다는 0.23점 높다. 물리학과에 소속된 한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과학 과목들 중에서 물리를 특히 어렵게 생각하고 기피한 결과 대학에서 교양 물리를 매우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과 공대 1학년의 경우 물리가 선택이 아닌 교양 필수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수학은 고등학교 3년 동안 꾸준히 배워왔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도 낯설고 어렵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의수준 0.05에서의 Tukey의 다중비교 분석 결과는 (물리, 통계, 생물) 등이 한 그룹이고, (수학, 스포츠, 과학) 등이 또 다른 그룹으로 확연히 분리된다. 따라서 자연과학대학내에서도 교양의 경우 사후보정을 하려면 반드시 학과별로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표 3.3은 같은 교양필수 과목이라 하더라도 어떤 학과를 담당했느냐에 따라라도 강의평가 평균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6개 학과의 교양필수 과목을 종합한 결과 강의 대상이 학과의 전공 기초 성격을 띠는 학과의 강의평가 평균 점수는 그렇지 않은 학과보다 평균적으로 0.3~0.6점 정도 더 높다. 특정 교원이 같은 교양 과목을 계속하여 담당할 경우에는, 강의평가 평균점수 차이가 대상 학과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교원의 강의의 질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표 3.3은 6개의 교양 과목 모두에서 담당학과의 특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강의평가가 교원업적평가에 반영되고 성과연봉제와 연동된다면 강의평가 점수가 낮게 나오는 학과의 교양 강좌를 누가 맡으려고 하겠는가? 문권배 (2010)에서 밝힌 것처럼 강의평가가 낮게 나오는 학과의 교양과목은 대부분 시간강사

표 3.3. 담당 학과별 교양과목 강의평가 평균 점수

과목	담당학과	교원 수	강좌 수	평균 점수
교양통계	통계	3	7	3.69
	경영	5	9	3.34
교양수학	수학	3	9	3.84
	화공	9	13	3.54
교양물리	물리	3	7	3.62
	응용시스템	5	7	3.01
교양생물	생물	2	21	3.71
	화학	3	8	3.32
교양화학	화학	3	8	3.72
	건축	2	5	3.24
교양지구환경	지구환경	1	4	3.84
	과학기술	5	8	3.51

표 3.4. 학과별 전선과목의 강의평가 점수 평균과 학년 평균

학과	점수 평균(과목수)	학년 평균
화학	3.82(118)	2.9
생물	3.87(168)	3.1
지구환경	3.94(88)	3.2
과학	3.95(90)	3.2
물리	3.97(79)	3.0
통계	3.98(60)	3.1
수학	3.98(90)	3.1
반도체	4.02(79)	3.1
스포츠	4.05(131)	3.2
전체	3.95(903)	3.1

에게 돌아갈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이다.

3년에 걸친 총 6개 학기 강의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므로 학과별로 교양의 강의평가 점수가 뚜렷한 편의를 갖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교수의 강의 실력과 무관한 외부 환경 요인이 명확하게 존재하며 또 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쉽게 찾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교원업적평가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정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단과대학교 학과 특성도 무시한 채 시간 강사의 강의평가 평균 점수가 3학기 동안 계속하여 3.5점 이하일 때 강의를 맡기지 않으려는 정책은 반드시 재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표 3.4는 교양과목의 학과별 특성이 전선과목의 경우에는 전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전체 평균은 3.95점이지만 화학과의 경우는 0.13점 낮은 3.82점이다. 일반적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강의평가 점수가 후한 경향을 고려한다면 화학과의 경우 평균 학년이 제일 낮은 것이 평균 강의 점수를 낮게 만든 요인과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유의수준 0.05에서의 Tukey의 다중비교 분석 결과는 (화학, 생물, 지구환경) 등이 같은 그룹이고, (지구환경, 과학, 물리, 통계, 수학, 반도체, 스포츠) 등이 또 다른 그룹으로 나왔다. 따라서 교양과목과는 또 다른 사후 보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교양과 전선에서 나타난 학과별 특성이 전필에선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표 3.5이다. 전선보다 전필이 특히 낮은 학과는 통계, 물리, 수학과로 0.22~0.29점 정도이다. 스포츠과학과만 전선보다 전필이 오히려 0.1점 높게 나왔고 전체 평균보다는 0.37점 높게 나왔다. 유의수준 0.05에

표 3.5. 학과별 전필과목의 강의평가 점수평균과 학년평균

학과	점수평균(과목 수)	학년평균
통계	3.69(19)	2.6
화학	3.70(36)	2.8
수학	3.71(30)	2.9
생물	3.71(31)	2.5
물리	3.75(19)	2.9
반도체	3.83(12)	2.8
과학	3.89(18)	2.8
지구환경	3.89(17)	2.7
스포츠	4.15(16)	2.7
전체	3.78(198)	2.7

서의 Tukey의 다중비교 분석 결과는 (스포츠, 지구환경, 과학) 등이 같은 그룹이고, 스포츠를 제외한 다른 학과들이 또 다른 그룹으로 나왔다. 강의평가가 성과연봉제와 연동된다면 전필이 전선보다 상대적으로 강의평가 점수가 낮게 나오는 학과의 경우에 전필 강의를 기피하거나 담당하더라도 학생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하여 과거보다 적게 가르치고 시험 문제는 쉽게 출제하며 과제물은 더 적어질 수도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의 몫으로 돌아갈 것임은 불 보듯 명확하다.

원점수를 전혀 보정하지도 않고 강의 우수 교수를 선발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성과연봉제와 연동할 때 현행의 강의평가 제도는 자연과학대학의 경우 스포츠과학과와 과학학과에 특히 유리하고 화학과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더 나아가 학과별 세부전공, 강좌 규모, 강의 대상 학과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한다면 강의평가 평균 점수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더 나타날 수도 있다. 요인이 늘어날수록 사후보정 규칙은 매우 복잡해질 것이다. 마지막에는 어느 학과나 교수가 강의평가 점수가 낮은 원인이 학과와 과목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할 때 누가 어떻게 시비를 가릴 수 있을까? 이러한 모든 요인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여 강의평가 점수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교원업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4. 결론

대부분의 언론들은 그동안의 국립대 교수사회가 나이와 근무연수에 맞춘 연공서열식 봉급체계인 호봉제에 안주한 ‘철밥통’이었다고 비판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성과연봉제를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60%가 넘는 국립대 교수는 반대 서명을 하였다.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현재 국립대의 보수 수준은 사립대보다 훨씬 낮은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성과연봉제는 상대평가로 교수들을 줄 세운 후 하위 50%에 해당하는 교원의 보수를 상위 교원에게 떼어주는 제로섬(zero-sum) 방식이며, 이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조차도 그 부작용을 우려하여 기피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제도라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교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학에는 다양한 학문 분야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수수가 적은 경우에는 여러 분야의 교수들을 묶어서 상대평가 비율을 맞추기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문적 특성, 연구 환경의 차이가 무시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교수들이 만족하는 평가 기준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

교수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실시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각 국립대학들은 교원업적평가와 연봉제 도입을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는 2010년 8월 교수 7명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신규 임용 교수

에 적용할 교수업적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현재 서울대의 교원업적평가는 교육(40%), 연구(40%), 봉사(10%), 기관장 평가(10%)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과 연구의 비율을 교수별로 달리 지정할 수도 있다. 전북대의 교원업적평가는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항목별 비율이나 상한선이 없다. 이러한 기준 하에서 높은 교육 점수를 얻기는 어려우나 연구 점수는 한계가 없으므로 현재의 교원업적평가 제도가 그대로 성과연봉제에 적용된다면 교수는 학생들의 교육을 지금보다 훨씬 더 소홀하게 여길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

그동안 많은 대학들이 지난 수년간 교원업적평가 제도를 운영한 경험에 비추어 연구 평가는 정량적 지표가 있어서 문제가 거의 없다. 그러나 교육 평가에서는 담당수업 시간 수, 대학원 졸업생 배출, 학생지도 등과 같이 몇몇 양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강의의 질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 강의 평가는 평가자, 평가 내용, 평가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미국에서는 강의 평가의 평가자가 학생, 동료 교수, 교육 전문가, 졸업생, 기업인, 학과와 관련된 외부 인사 등과 같이 각양각색이다. 조금 더 공정한 강의평가를 위하여 이 중 몇 개의 평가제를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

조벽 (1997)은 미국의 경우 이미 1924년도부터 체계적인 강의평가에 대한 찬반론 연구가 있을 정도로 뿌리가 깊다고 밝히고 있다. 기껏해야 강의평가 경험이 10년도 채 안 되는 대학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재정지원 사업’ 정책에 떠밀려 미국이나 또는 서울의 어느 대학에 강의평가양식과 설문내용을 흉내 내고 있을 뿐이다. 정작 강의 개선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요식 행위만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진 등 (1994)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말 강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현재의 표준화된 설문지보다는 학생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적을 수 있게 강의평가 설문지 양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시간, 가장 지루했던 시간, 교과서에 관한 의견, 과제물, 성적평가에 관한 의견, 전반적인 만족도, 기타 수업 진행과 관련하여 건의하고 싶은 내용 등을 쓰게 하라는 것이다. 대략 반 정도의 학생들은 진지하게 대답을 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은 경험을 보고한다. 물론 이러한 강의소감 자료가 강의개선에는 도움이 되지만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교원업적평가를 성과연봉제에 연동할 경우,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학과별 전공별 특성에 기인하여 객관적인 사후 보정이 어려우므로 업적점수에 많이 반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육업적점수는 크게 차이가 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교수들은 교육을 전보다 더 등한시 하게 되고 양적인 연구에 더욱 치중할 것이다. 모든 교수들이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논문을 생산해도 누군가는 C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조벽 (1999)은 대학에서 일어나는 갈등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연봉제에서 일어날 것이며, 또한 연봉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교수의 건강에 치명적이며 엄청난 생산력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참고문헌

- 김성연, 권지명 (2005).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균등화법에 의한 강의평가 개선방안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지>, 7, 1705-1721.
- 김영진, 설봉식, 이승욱, 유병위, 신용백, 이정도, 서성무 (1994). 학술 심포지움: 교수강의평가제 - 과연 생산성이 있는가, <생산성논집>, 8, 225-235.
- 김학일, 김성숙, 권오양, 이천, 노경호 (2007). 이공계 강의평가 결과의 실증적 분석을 통한 강의평가제도 개선방안, <공학교육연구>, 10, 58-77.
- 문권배 (2010). 강의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수학교육과 관련하여, <제45회 전국수학교육연구대회 프로시딩>, 59-71.

- 조벽 (1997). 강의평가, <공학 교육과 기술>, **4**, 66-73.
- 조벽 (1999). 연봉제의 효과와 부작용, <공학교육과 기술>, **6**, 72-78.
- 조장식 (2010). 회귀분석에 기초한 균등화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1**, 513-521.
- 조장식, 강창완, 최승배 (2009). 강의평가에 대한 균등화 방법의 비교,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0**, 65-75.
- 한경수, 최숙희, 박재철 (2011). 강제적인 대학 강의평가의 문제점, <한국통계학회논문집>, **18**, 35-45.
- 한신일 (2002). 강좌규모와 강의평가결과의 관계분석, <고등교육연구>, **13**, 155-176.

Faculty Performance Evaluation, Annual Salary and Student Course Evaluation

Kyungsoo Han¹

¹Department of Statistic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March 2011; accepted March 2011)

Abstract

On March 2011, an annual salary plan was applied to new faculty members in National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2015, all tenured faculty members will receive salaries based on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s. The efforts and accomplishments of faculty are normally assessed according to a standard formula of 40% teaching, 40% research and 20% service. In almost all colleges and universities, student course evaluations may be considered as the only measure of the perceived quality of the courses offered by the faculty member. The mandatory course evaluations are becoming prevalent in Korea. The results of course evaluations do not reflect the fairness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quality of the course taught by the faculty member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under the teaching evaluation criteria.

Keywords: Performance evaluation, annual salary, course evaluation.

¹Professor, Department of Statistic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664-14 Deokjin-Dong, Deokjin-Gu, Jeonju, Jeonbuk 561-756, Korea. E-mail: kshan@jbnu.ac.kr